

SKT 유영상 대표 신년사…

“SKT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 됩시다”

**- 全 구성원에게 메일 보내 ▲기술혁신 주목 ▲변화에 적극 대응 ▲기회 선점 강조**

**- 이를 위해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 추진**

|  |
| --- |
|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1. 3] 보도참고자료**

SK텔레콤([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 유영상 대표가 한 해의 시작을 맞아 全 구성원에게 이메일 레터를 보내 ‘2022년을 SKT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유영상 대표는 우선 기술혁신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혁명에 버금가는 AI혁명이 B2C, B2B를 막론하고 가시화될 것이며, 메타버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로 진입했고 플랫폼 경제는 고객과 참여자에게 정보와 가치가 분산되는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이 예상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KT 근간인 유무선 통신사업의 지속 성장은 물론 T우주, 이프랜드, 아폴로 서비스 등 선점 영역을 더욱 키우자고 제안했다.

또 유 대표는 가장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위한 CEO 직속 TF의 발족과 함께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하늘을 나는 차(UAM),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는 로봇, 인류의 로망인 우주여행이 앞으로 10년 내에 가능해질 것이라며 SKT는 향후 10년을 미리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유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일하는 방식을 순차적 분업 형태에서 임무 중심의 자기 완결적인 애자일(Agile) 체계로 전환시켜 나가고, 구성원들이 어느 곳에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Work From Anywhere’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유 대표는 구성원들에게 SKT의 10년 후 모습이 어떨지 고민하며 성장의 방향을 찾고 있다며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답을 찾아갈 것임을 밝혔다.

**▶ 관련문의 : SKT PR실 (02-6100-3812~21, 32~41, 51~54)**

**<끝>**